

영유아 뇌수막염 기승

병원 북새통...광주·전남 평균 환자 전국 최다

광주·전남지역에 무균성(바이러스) 뇌수막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각 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아동전문병원 등은 밀려드는 환자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무균성 뇌수막염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에게 발병 가능성이 높아 자녀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4일 광주지역 의료기관들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에서 무균성 뇌수막염 증상을 호소하는 영유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최근 한 달간 뇌수막염으로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가 130여명에 이르며, 입원 환자만 매일 3~7명에 달한다. 조선대병원에도 같은 기간 뇌수막염 치료를 받은 환자는 120여명이다.

광주시 남구·북구 미래아동병원의 경우 최근 한 달간 뇌수막염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330여명에 이르며, 증세가 심해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는 100여명에 달한다. 광주기독교병원은 한 달간 내원환자만 200여명에 달하고 현재 입원중인 환자도 40여명이나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일 전국의 소아과 등 144개 의료기관의 '무균성 뇌수막염' 최근 10주간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 당 뇌수막염 평균

환자 수가 각각 14명과 38명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1,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 수치(1.7명)는 물론, 3위를 기록한 경남(4.0명)과 비교해서 훨씬 높은 발병률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중순 '무균성 뇌수막염 유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영유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바이러스 뇌수막염이 급속도로 퍼지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광주·전남 등 보건당국은 오지(오염)·나사(내과)·소아(소아과)·병·의원(병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뇌수막염은 법정전염병이 아니어서 각 병원에서 발병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예방홍보 활동 이외에는 뚜렷한

▲무균성 뇌수막염=뇌와 척수를 둘러싸는 뇌수막에 생긴 염증으로 세균이 아닌 엔테로바이러스(장염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주로 4~14세의 아동에게 발생한다. 증상은 초기에 열이 나고 구역질과 두통, 설사, 발진 등이 나타난다.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남구 미래아동병원 김병희 원장은 "무균성 뇌수막염은 전염성이 강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 집단생활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사이에 급격히 퍼질 수 있다"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에 무균성 뇌수막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광주시 남구 미래아동병원에서 영유아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위험한 국토대장정

영암서 대학생 2명 또 폭염 실신

연일 지속된 폭염 속에 국토대장정 참가자들의 실신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더위 속 행사강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오전 10시30분께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국토대장정 참가자 장모(여·20)씨 등 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을 보고 동료가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장씨 등은 인근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Y청년단체 소속으로 베이징 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국토대장정(21박22일 일정) 행사가 참가 중이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이 국토대장정

에 참가한 임모(여·21)씨 등 3명이 무안과 강진 등지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지난 7일엔 불발대위 속에 한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여대생 서모(21)씨가 경북 경주시 산내면 도로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광주시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체온조절 기능이 문제가 생겨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국토대장정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하고 인원 수도 많아 개개인을 다 챙길 수 없어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구사시 특가 및 상품행영

도난 차량 다시 훔친 고교생들... 새로 산 승용차를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30대 여성의 차를 또 다시 훔친 고교생 6명이 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한...

조선족 가정의 안타까운 죽음

아들 등록금 벌려고 막노동·노숙하다 숨져 가족들 병원비 500만원 없어 시신 인수못해

아들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고국행을 결심한 50대 조선족 가정의 코리아 드림이 한국 생활 7개월만에 물거품으로 변했다.

지난 13일 광주기독교병원에서 지방으로 숨진 조선족 조모(51·중국 길림성)씨. 조씨는 하나뿐인 아들(22)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한국행을 택했다. 중국에서 공사장 잡일을 했던 조씨의 수입으로는 등록금을 대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지난해 12월 누나(54), 남동생(45)

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러나 그의 한국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취업을 위한 건강검진 결과 방광염 등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워지자 조씨는 누나, 남동생과 헤어진 뒤 전국의 노동관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번 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보냈고, 치료는 커녕 공원과 놀이터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버텼다.

역척스럽게 돈을 벌었지만 조씨의 건강 상태는 극도로 악화됐다.

결국 조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모 빌라 앞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패혈증으로 숨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씨는 이틀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나온 병원비 등 500여만원을 한국에 있는 누나와 동생이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식당일을 하는 누나는 일을 오래 쉴 수 없어 하루 빨리 복귀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조씨의 입원에 보증을 선 광주시 광산구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이현영(50) 소장은 병원비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이 소장은 "중국 영사관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많이 보아왔지만 조씨처럼 병세가 위독해 숨진 경우는 처음이어서 난감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이정섭 군수 구속기소

광주지검 특수부(이성운 부장검사)는 14일 인사청탁과 관련해, 부하 직원들에게 뇌물을 받은 이정섭 담양군수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돈으로부터 청탁금을 받아 전달한 이 군수의 친형 등 2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이 군수에게 돈을 주고 승진을 부탁한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군수 당선을 전후해 승진과 채용 대가로 6천500만원을 받고, 관급 자체계약과 관련해 남평읍사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이날 이 군수의 구속 기소로 인해 담양군은 주영찬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결손아동 부식비 가로챌

前 보육시설 원장 구속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결손아동의 부식비 1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한 전 보육시설 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박환용 부장검사)는 14일 보육시설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해 온 화순군 A북지법인 전 원장 이모(·50)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전 A북지법인 아동시설 원장을 지낸 이씨는 지난 2003년 1월 화순군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육시설 보조금 중 부식비 70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7년 9월까지 모두 116차례에 걸쳐 1억2천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locations including Jeonju, Jeonju, and Gwangju, listing properties for sale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